

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나온다

- 산업부, 무보, 시중은행 등 20개 금융기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금융 협약 체결
- ①최대 10조 원의 AI 자율제조 전용 보험상품, ②450억 원의 AI 자율제조 펀드, ③2,000억 원의 AI 자율제조 관련 대출 프로그램 출시

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 지분투자, 대출 등 전용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20개의 금융기관 등은 9.24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금융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AI 자율제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금융상품들의 출시 계획을 밝혔다. AI 자율제조 프로젝트란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제품의 품질·생산성·친환경성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업이다.

금융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배경

제조 기업들은 AI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AI 자율제조는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탄소 감축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가 공모 중인 10대 AI 선도 프로젝트에 213개의 후보 과제가 몰리기도 하였다.

7월에는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는데,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HD한국조선해양, GS칼텍스 등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여해 20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와 100개 이상의 표준모델을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금융기관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기관들은 이날 협약을 맺고 AI 자율제조 투자와 관련된 보험, 대출, 지분투자 등 대표적인 금융 3종 상품을 출시하였다(붙임 2).

① 보험 : 10조 원 규모의 무역 보험 상품 출시(무역보험공사)

먼저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AI 자율제조 전용 보험상품을(AI Plus+) 출시한다. AI Plus+ 는 기업들이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AI 도입을 위한 투자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무보가 대출상환 위험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상품에 가입한 기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무보는 수출·입 대금결제, 해외 설비·지분 투자 등을 중심으로 무역 금융을 지원해 왔으나 금번 상품 출시로 AI 자율제조와 관련한 국내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확대 지원하게 된다. 기업들은 이번 상품의 출시로 국내설비 투자비까지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에 이번 상품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최대 30%의 보험료 할인과 최대 100%의 부보율 혜택까지 받게 된다. 또한 무보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시중 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날 국내·외 은행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보는 5년간 최대 10조 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② 지분투자 : 450억 원 규모의 AI 자율제조 펀드 출시(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AI 자율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AI, 로봇, SW, SI 전문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한다. AI 자율제조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제조 기업의 적극 투자뿐 아니라 AI 등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중요하다. 이 펀드는 산업기술 혁신펀드의 자펀드로서, 20개 내외 유망 스타트업 등의 AI 자율제조 관련 기술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③ 대출 : 2,000억 원 규모의 AI 자율제조 대출 지원(신한·기업·하나은행)

신한, 기업, 하나 등 3개 시중은행은 AI 자율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위해 0.7%p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AI 자율제조 관련 연구개발(R&D)을 추진하거나 AI 자율제조를 생산현장에 적용하는 기업들에 제공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대상 기업들을 추천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발언

협약식에 참석한 안덕근 장관은 “AI 자율제조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에 있어서 금융이 혈액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제조업과 AI,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AI 자율제조가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이 되도록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용민	(044-203-4310)
		담당자	사무관	마선영	(044-203-431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행사 개요

- 時·所 : 9.24(화), 14:00~15:00,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22F)
 - 참석자 : 산업부, 무보, 산기평, 시중은행(국민, 하나 등), 외국계 은행, 펀드 운용사,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기업 등 100여 명
 - 주요내용 : ❶ AI 자율제조 전용 금융상품(AI Plus+) 발표(무보)
 ❷ AI 자율제조 펀드 및 대출 프로그램 소개(산기평)
 ❸ AI 자율제조 금융 지원 협약식*
- * 산업부, 무보, 산기평, 국내·외 금융기관, 펀드 운용사 등 20개 기관

2. 진행 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및 주요 참석자 소개	
14:05~14:10	(5')	▶ 개회사	산업부 장관
14:10~14:20	(10')	▶ AI 자율제조 금융 지원 협약식	산업부, 무보 산기평, 시중은행, 펀드 운용사 등 20개 기관
14:20~14:30	(10')	▶ (발표1) AI 자율제조 보증상품	무보
14:30~14:40	(10')	▶ (발표2) AI 자율제조 펀드 및 대출상품	산기평
14:40~14:45	(5')	▶ 장내 정리	
14:45~15:00	(15')	▶ 보험상품, 펀드, 대출상품 관련 QA	참석자 전원

1. 무보의 보험 상품 출시

- (출시 배경) AI 자율제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
 - 과제당 정부 예산의 지원규모는 최대 100억원인 반면, 대형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평균 투자 자금은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
 - 이에 프로젝트 추진시 대부분 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 활용 예정, 이 과정에서 저리의 대출을 위해서는 무보 등의 보증·보험이 필수
- (출시 상품) 10조원 규모의 AI 자율제조 전용 보험 상품
 - * AI Plus+(보험 상품명) : 기업들이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AI 도입을 위한 투자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무보가 대출 상환 위험을 보증해주는 보험 상품
 - 그 간 무보는 수출대금 확보, 해외투자 등 중심으로 금융을 지원, 금번 상품으로 국내 AI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보험을 확대 적용
 - * 단 기업이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한정
 - 무보는 이번 상품에 대해 최대 30%의 보험료 할인과 최대 100%의 **부보율 혜택**까지 지원
 - 또한 무보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받도록 14개 국내·외 은행과 MOU 체결

2. 산기평의 AI 자율제조 펀드 출시

- (출시 배경) AI 자율제조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는 AI, 로봇 등의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중요
 - AI, 로봇, SW, SI 등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이 필요
- (출시 상품) 450억원 규모의 AI 자율제조 전용 펀드
 - * AI 자율제조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등의 지분에 투자**하는 펀드
 - 산업기술혁신펀드(산업기술 자금 전담은행 제도를 활용)의 **자펀드**로서, 총 20개 내외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

- 펀드의 운용기간은 8년으로, ①기술 잠재력을 위주로 평가해 투자, ②이를 위해 산기평이 기술컨설팅을 지원, ③유망 기업들이 펀드 자금으로 충분한 성장기회를 확보하도록 장기간에 걸쳐 자금 회수
- 코오롱인베스트먼트와 IBK캐피탈이 펀드 운용사로 既 선정됨

3. 3개 시중은행(신한, 하나, 기업)의 AI 자율제조 대출 프로그램

□ (출시 배경) AI 자율제조 투자와 관련된 전용 대출 프로그램은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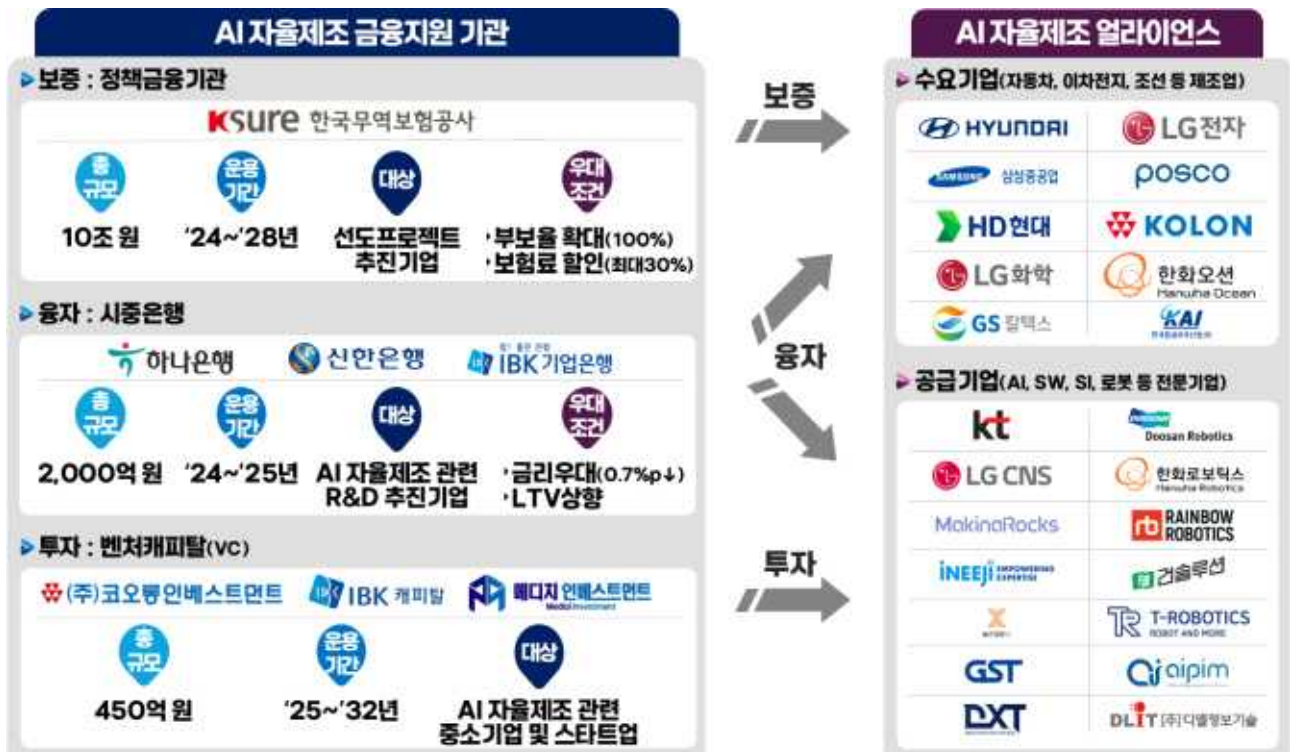
* 기업들은 일반 대출심사를 통해 AI 자율제조 투자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 (출시 상품) 2,000억원 규모의 AI 자율제조 전용 대출 상품

- AI 자율제조 관련 R&D를 추진하거나(공급기업) AI 자율제조를 생산 현장에 적용하는 기업(수요기업)들에게 특별 용자*를 지원

* 기업의 운전·시설자금 등을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며 ▲0.7%p 금리를 우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확대 적용

【 3대 금융 상품 개요 】



연번	구분	기업·기관명
1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2	준정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3	준정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	국내은행	국민은행
5	국내은행	하나은행
6	국내은행	신한은행
7	국내은행	우리은행
8	국내은행	IBK기업은행
9	국내은행	농협은행
10	외국계은행	BNP Paribas
11	외국계은행	Citi은행
12	외국계은행	ING은행
13	외국계은행	CACIB(Cré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14	외국계은행	Mizuho은행
15	외국계은행	SMBC
16	외국계은행	Societe Generale
17	외국계은행	DBS은행
18	펀드운용사	코오롱인베스트먼트
19	펀드운용사	IBK캐피탈
20	펀드운용사	메디치인베스트먼트